

일 간호대학생들의 전공학습 전과 후 죽음에 대한 성향비교*

최 순 희** · 이 은 주*** · 박 민 정****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가족의 구조와 기능이 변화되고 의료의 발달로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의료의 도움으로 생명이 연장되고 만성질환으로 사망하는 경향이 증가함에 따라 상병자나 임종환자에 대한 돌봄이 가정에서 병원으로 옮겨지게 되어 간호사들이 임종환자를 간호해야 할 경우가 더욱 많아졌다(Gow & William, 1997; Kastenbaum, 1986). 간호의 궁극적인 목적중의 하나가 임종환자들이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돕는 것임을 볼 때 대상자가 죽음을 삶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죽음의 의미를 추구하도록 도와주는 일은 전인간호를 실시해야 하는 간호사의 중요한 역할이다(Choi, 1991).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는 필연성과 자연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고 비관적이 되어 필연적인 과정으로

수용하기보다는 두려워하고, 슬퍼하며, 부정하고, 저항하게 된다(Kim, 1990). 이와 마찬가지로 간호사들도 대부분 죽음에 대한 자신의 사상을 정립하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간호사들이 죽음에 대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거나 올바른 견해를 갖지 않은 경우 임종환자를 간호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대상자의 요구를 파악하여 충족시키는 도움을 주기보다는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해하거나 무관심한 표정을 지으며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Lee, 1995).

임종환자를 위한 간호중재에는 대상자가 품위있게 죽도록 돕고 생리적 요구를 충족시키며, 영적인 지지를 제공하고 가족을 지지하는 일들이 포함된다(Kozier, Erb, Berman, Burke, 2000). 죽음에 대한 성향(의식)은 임종간호를 수행하고자 하는 열의나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 수행정도를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임종환자를 돌보게 되는 간호제공자는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의미와 의식을 분명히 하는 것이 죽음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형성과 임종환자를 이해하고 간호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 이 논문은 2001년도 전남대학교병원 임상연구소 학술연구비로 연구되었음

**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교수, 전남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교신저자 E-mail : choish@chonnam.ac.kr)

*** 서강정보대학 응급구조과 교수

**** 전남대학교 보건연구정보센터 연구원

투고일: 2002년 7월 11일 심사외뢰일: 2002년 10월 21일 심사완료일: 2002년 10월 25일

그러나 실제연구에서 간호학생의 임종환자에 대한 이해정도가 평균이하로 부정적인 이해수준이었고(Kim, Chun, Kim, 1992), 간호학생의 56.7%만이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으며(Yang, 1992), 죽음의 의식도 긍정적인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Cho, 1997) 등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또한 임종환자의 두려움과 슬픔같은 심리적 간호요구가 충족되지 못한 이유중의 하나가 임종간호를 위한 훈련된 간호사가 배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Kim, 1980), 간호사의 76.5%는 말기환자간호를 위한 준비가 부적절한 것으로 느꼈으며(Frommelt, 1991), 거의 모든 간호사들이 임종환자의 영적 요구를 인식하였지만 25%만이 영적 간호를 수행했거나(Kwon, 1989) 영적 요구를 거의 충족시켜주지 못했던 결과(Narayanasamy, 1993) 등을 종합해 볼 때 간호학생이나 간호사들이 두려움이나 불편한 감정없이 임종환자를 간호하려면 먼저 죽음과 임종과정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인식하고 긍정적인 죽음관을 정립해야할 뿐만 아니라 임종환자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및 영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간호수행능력을 갖추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간호학생들은 임종간호를 제공하는 간호사 역할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없으면 역할 수행시 많은 갈등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기능중심적인 간호에 치우치게 되기 쉽다. 그러므로 간호학생들로 하여금 죽음에 대한 올바른 사고와 태도를 확립할 수 있게 하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로 임종간호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초기 간호교육과정에서 죽음에 대한 철학과 임종환자에 대한 학습경험을 얻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간호사와 간호학생을 대상으로한 연구에서 응답자의 98%가 임종간호교육이 간호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고(Kim 등, 1992), 간호사의 임종간호에 대한 태도가 교육전보다 교육후에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으므로(Frommelt, 1991) 임종간호와 관련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임종환자와 그 가족간호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먼저 간호학생들의 죽음에 대한 성향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지금까지 죽음의 성향을 조사한 연구들을 보면

간호사(Kwon, 1980; Park 등, 1996)나 호스피스 요원(Kim 등, 1997; Park, 1992))을 대상으로 한 몇 편의 연구들이 있었으나 간호학생(Cho, 1997)의 죽음의 성향을 조사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일 간호교육과정내에서 전공학습에 들어가기 전에 간호학생들이 갖는 죽음에 대한 성향정도와 기존 교육과정의 전공학습을 전부 마친 후에 그 간호학생들이 갖는 죽음에 대한 성향정도를 비교함으로써 간호학생들에게 친인적인 임종간호를 수행할 수 있는 죽음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형성과 올바른 죽음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단일과목개설 등 기존 교육과정의 개편의 필요성을 파악하고 이를 계획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2. 연구의 목적

- 1) 대상자의 전공학습전과 후의 죽음에 대한 성향정도를 파악하고 비교한다
- 2) 대상자의 전공학습전과 후의 죽음에 대한 성향정도에 관련되는 요인을 파악한다

3. 용어의 정의

1) 죽음에 대한 성향(death orientation)

죽음에 대한 성향은 죽음에 대한 염려, 불안, 두려움, 이해 및 죽음의 의미 등의 여러 요소가 복합된 다차원적 개념을 의미하며(Thorson & Powell, 1988), 본 연구에서는 Thorson과 Powell(1988)의 죽음에 대한 성향 측정도구를 Park(1992)이 변안하여 사용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한 점수이다. 점수가 낮을수록 죽음에 대한 긍정적 성향을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성향을 의미한다.

2) 종교성(Religiosity)

대상자가 종교에 부여하는 의미 혹은 관심의 정도를 뜻하며(Bell & Batterson, 1979) 본 연구에서는 Bell과 Batterson(1979)의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된 점수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종교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생들의 죽음에 대한 성향이 기존 교육과정에 산재된 임종간호교육에 의해 변화되는 지를 파악하여 체계적인 영적 간호교육의 필요성을 알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은 K시에 위치한 C대학 간호학과에 재학중인 간호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1998년과 1999년에 각각 전공학습에 들어가기 전인 2학년 학생들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한 후 자료수집을 하였으며, 그 학생들이 4학년이 되어 전공학습을 전부 마친 2000년과 2001년에 각각 다시 한번 동일한 내용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3. 연구도구

1) 죽음에 대한 성향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생의 죽음에 대한 성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Thorson과 Powell(1988)의 죽음에 대한 성향도구를 Park(1992)이 번안하여 사용한 것을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2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대체로 그렇다' 3점, '거의 그렇다'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범위는 최소 25점에서 최대 100점으로 평균점수가 75점 이상은 죽음에 대한 성향이 부정적인 것으로, 50-75점 미만은 중간 수준으로, 50점 미만은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한다. Thorson과 Powell(1988)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hronbach's $\alpha = .82$ 로 보고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Chronbach's $\alpha = .92$ 였다.

2) 종교성 측정도구

대상자의 종교성 측정은 Bell과 Batterson (1979)이 제시한 3문항을 park(1992)이 번안하여 사용한 것을 이용하였다. 종교로부터의 위안정도와 종교모임에 참석정도, 종교가 자신의 삶과 죽음의 의식발달에 기여하는 정도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을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때때로 그렇다' 2점, '거의 그렇다' 3점으로 측정하여 최대 9점에 가까울수록 종교성이 높은 것으로 최소 3점에 가까울수록 종교성이 낮은 것으로 해석한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AS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에 따른 백분율을 산출하고, 전공학습 전과 후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은 χ^2 검증한다. 전공학습전과 후의 죽음에 대한 성향의 차이는 paired t-test를 이용하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죽음에 대한 성향은 t검증과 ANOVA 및 Duncan검증을 이용한다. 죽음의 성향과 종교성간의 관계는 Pearson상관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III. 연구 결과

1. 전공학습 전과 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비교

대상자의 전공학습 전(72.3%)이나 후(71.5%)에 대상자들의 72%정도가 평상시 자신의 신체기능을 좋은 편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28%정도의 학생은 신체기능이 좋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였다. 현재 아픈 증상의 유무에 대해서는 전공학습 전과 후에 모두 대상자의 38%이상이 아픈 증상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대상자의 과반수이상(전공학습 전:55.4%: 전공학습 후:56.1%)이 가족이나 친지의 죽음을 경험하였으며, 전공학습 전에는 대상자의 93.1%가, 전공학습 후에는 36.6%가 영적 간호를 수강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학습 전과 후에 모두 대상자의 약 40%정도가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

대상자의 전공학습 전과 후의 일반적 특성을 비교

해보면 '영적 간호 수강' 유무($x=83.39, p=.001$)를 제외한 모든 변인들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으므로 나타났으며($p > .05$), 전공학습 전에 대상자의 영적 간호 수강 경험율은 6.9%에 불과하였으나 전공학습 후에는 63.4%로 증가하여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그러나 전공학습후에도 36.6%가 영적 간호에 대한 수강경험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 전공학습 전과 후 죽음에 대한 성향점수

전공학습 전에 대상자의 죽음에 대한 성향 점수는 25점-100점의 척도범위 중 최대값 86점, 최소값 20점이었고, 문항별 평균은 2.3점이었다. 전공학습 후의 죽음에 대한 성향점수는 최대값 93점, 최소값 29점이었고, 문항별 평균은 2.4점이었다.

죽음에 대해 50점미만의 긍정적인 성향을 나타낸 대상자의 비율은 전공학습 전(21.5%)과 후(22.8%)에 거의 비슷하게 낮게 나타났고, 50점이상-75점미만인 중간수준의 죽음성향을 나타낸 대상자의 비율은 전공학습 전(70.0%)이 후(65.0%)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75점이상인 부정적 성향을 나타낸 대상자의 비율은 전공학습 후(12.2%)가 전(8.5%)보다 약간 더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Table 1).

3. 전공학습 전과 후 죽음에 대한 성향점수 비교

대상자들의 전공학습 전과 후의 죽음에 대한 성향 점수를 비교한 결과 전공학습 전에는 평균 57.8점이었고, 전공학습 후에는 평균 61.2점으로 나타나 전공학습 후의 죽음에 대한 성향점수가 전공학습 전보

<Table 2> Comparison of death orientation score

	Mean±SD	t(p)
Before major learning	57.8(12.25)	1.52(0.129)
After major learning	60.2(13.45)	

다 약간 높아 더 부정적인 경향을 보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2).

4. 전공학습전과 후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죽음에 대한 성향점수

전공학습 전의 죽음에 대한 성향점수는 대상자가 느끼는 '평상시 신체기능'에 따라 유의한 차이($F=3.88, p=.023$)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사후검증을 한 결과 대상자가 자신의 신체적 기능이 '언제나 좋다'고 느끼는 군(46.4점)이 '대체로 좋다'고 느끼는 군(58.7점)이나 '좋지 않다'고 느끼는 군(58.0점)보다 죽음에 대한 성향점수가 유의한 차이($p<.05$)로 낮게 나타나 평상시 신체기능이 언제나 좋다고 느끼는 군이 죽음에 대해 더 긍정적인 성향을 보였다. 또한 전공학습 전의 죽음에 대한 성향점수는 영적 간호 수강경험이 있는 군(47.8점)이 없는 군(58.5점)보다 유의한 차이로 낮게 나타나 죽음에 대해 더 긍정적인 성향을 보였으며, 종교가 있는 군(54.4점)이 없는 군(59.4점)보다 유의한 차이($t=1.82, p=.07$)는 아니었지만 죽음에 대해 더 긍정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경향이였다.

전공학습 후의 죽음에 대한 성향점수는 대상자가 느끼는 '평상시 신체기능'에 따라 유의한 차이($F=2.55, p=.082$)가 없었으나 '언제나 좋다' 군(50.9점), '대체로 좋다' 군(59.80), '좋지 않다' 군(63.0점)의 순서로 낮게 나타나 자신의 신체 기능이 좋지 않다고 느낄수록 죽음에 대한 성향 점수가 부정적인 경향이였다. 이에 대한 사후검증에서는 신체적 기능이 '언제나 좋다'고 느끼는 군(50.9점)이 '좋지 않다'고 느끼는 군(63.0점)보다 죽음에 대한 성향점수가 유의한 차이($p<.05$)로 낮게 나타나 평상시 신체기능이 언제나 좋다고 느끼는 군이 죽음에 대해 더 긍정적인 성향을 보였다. 또한 전공학습 후 죽음에 대한 성향점수는 대상자 '자신의 건강느낌'에 따

<Table 1> Death orientation score before and after major learning

	Below 50 N(%)	50 ~74 N(%)	Above 75 N(%)	Max.	Min.	Each item Mean±SD
Before	28(21.5)	91(70.0)	11(8.5)	86	20	2.3(0.49)
After	28(22.8)	80(65.0)	15(12.2)	93	29	2.4(0.53)

<Table 3> Death orientation scor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before and after major learning

Variable Item	Before	t or F(p)	After	t or F(p)
	Mean±SD		Mean±SD	
Physical funtion				
Poor	58.0(14.24)	3.88 (0.023)	63.0(14.81)	2.55 (0.082)
Generally good	58.7(10.82)		59.8(12.60)	
Always good	46.4(13.10)*		50.96(12.9)	
Feeling of health				
Poor	57.4(15.15)	1.70 (0.186)	60.4(16.37)	4.76 (0.001)
Average	59.1(11.96)		62.6(12.53)*	
Good	54.3(10.76)		54.2(12.87)*	
Symptoms of illness				
Yes	57.3(12.15)	0.34 (0.733)	62.9(12.63)	1.76 (0.081)
No	58.0(12.38)		58.5(13.74)	
Illness of family member				
Yes	57.0(12.63)	0.79 (0.430)	61.0(15.70)	0.63 (0.527)
No	58.7(11.83)		59.5(11.13)	
Death of family member in 5yrs.				
Yes	57.4(12.53)	0.34 (0.734)	59.1(14.34)	1.05 (0.293)
No	58.2(11.99)		61.7(12.18)	
Attending a lecture on spiritual nursing				
Yes	47.8(13.15)	2.58 (0.010)	61.2(13.82)	1.06 (0.291)
No	58.5(11.91)		58.5(12.74)	
Religion				
Yes	55.4(12.75)	1.82 (0.071)	58.8(13.76)	0.89 (0.375)
No	59.4(11.71)		61.1(13.26)	

* p < .05 by Duncan's test

라 유의한 차이(F=4.76, p=.001)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사후검증을 한 결과 자신의 건강이 '좋다'고 느끼는 군(54.2점)이 '보통이다'고 느끼는 군(62.6점)보다 유의한 차이로 낮게 나타났고(p<.05), 또한 '좋지 않다'고 느끼는 군(60.4점)보다도 낮은 경향을 보였다. 상기한 이외의 일반적 특성 변인들은 죽음에 대한 성향점수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5. 전공학습 전과 후 대상자의 종교성과 죽음에 대한 성향점수의 관계

전공학습 전의 죽음에 대한 성향점수는 종교성으로 측정된 '종교로부터 위안(F=12.76, p=.0001)', '종교모임에 참석((F=8.43, p=.0004)', '종교가 삶과 죽음의 의식발달에 기여함(F=11.99, p=.0001)'과 같은 3항목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에 대한 사후검증을 한 결과 이 3항목에서

모두 '대체로 그렇다' 군이 '전혀 그렇지 않다' 군이나 '때때로 그렇다'군보다 죽음에 대한 성향점수가 유의하게 낮게 나타나 죽음에 대한 긍정적인 성향을 보였다.

전공학습 후의 죽음에 대한 성향점수는 '종교로부터 위안(F=3.07, p=.049)'과 '종교모임에 참석((F=6.28, p=.002)'과 같은 두 항목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에 대한 사후검증을 한 결과 종교로부터 위안을 받는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때때로 그렇다' 군(65.1점)이 '대체로 그렇다' 군(57.9점)이나 '전혀 그렇지 않다' 군(58.9점)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죽음에 대한 더 부정적인 성향을 보였다. '종교모임에 참석' 하는 가에 대해 '대체로 그렇다' 군(53.5점)이 '전혀 그렇지 않다' 군(60.3점)이나 '때때로 그렇다' 군(67.5점)보다 유의하게 낮게 나타나 죽음에 대한 더 긍정적인 성향을 보였다.

전공학습 전과 후에 대상자의 종교성과 죽음에 대한 성향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전공학습 전에는 종교

(Table 4) Relation between religiosity and death orientation before and after major learning

Item	Before		F(p)	After	
	Mean±SD			Mean±SD	
· Receiving comfort from religion					
None	58.5(11.32)	}*	12.76 (0.0001)	58.9(11.42)	}*
Sometimes	64.6(10.03)			65.1(13.43)	
Almost	51.6(12.04)			57.8(15.08)	
· Participating in religious group					
None	59.1(11.59)	}*	8.43 (0.0004)	60.3(12.47)	}*
Sometimes	62.8(12.91)			67.5(12.60)	
Almost	50.0(10.59)			53.5(14.55)	
· Religion's contribution to develop death orientation					
None	58.1(10.45)	}*	11.99 (0.0001)	58.9(12.20)	}*
Sometimes	65.1(10.80)			65.2(15.23)	
Almost	51.7(12.87)			57.9(12.85)	
Religiosity	r(p)=-.239(.006)			r(p)=-.059(.511)	

* p < .05 by Duncan's test

성이 죽음에 대한 성향점수와 역상관($r = -.239$, $p = .006$)을 나타내 종교성점수가 높을수록 죽음에 대한 성향점수가 낮으므로 죽음에 대해 더 긍정적인 성향을 보임을 의미한다. 전공학습 후에는 종교성과 죽음에 대한 성향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IV. 논 의

본 대상 간호학생의 약 28%정도가 자신의 신체 기능이 좋지 않다고 하였고, 또한 그들의 38%이상 이 아픈 증상이 있다고 하였던 결과들은 앞으로 건강관리자의 역할을 담당할 간호학생들에게 건강상의 문제가 있음을 암시해 주므로 간호학생들의 구체적인 건강상의 문제를 파악해볼 필요가 있겠다.

전공학습 전에 대상자의 6.9%, 전공학습 후에는 63.4%의 학생이 영적 간호를 수강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공학습 전과 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본 대상자가 전공학습을 마친 후에도 36.6%가 영적 간호에 대해 배우지 않았다고 응답한 것은 연구대상 대학의 교과과정내에 영적 간호나 임종간호관련 교과목이 없음을 잘 반영해준 결과이다. 또한 99%의 간호사가 임종환자의 영적 요구를 느꼈고 94%의 간호사가 영적 간호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지만 이 중 25%의 간호사만이 영적 간호를 수행하였던 보고(Kwon, 1989)를 감안해 볼 때 영적 간호

과목이 개설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간호사들이 환자의 영적 요구를 인식하고 있지만 이를 거의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으므로(Narayanasamy, 1993) 영적 간호를 수강했다고 한 63.4%의 학생들도 교외의 교육프로그램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그들의 전공 교과목내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졌는지를 파악해야 하고, 나아가 이들의 영적 간호에 대한 지식, 기술 및 태도를 평가함으로써 간호학생에게 영적 간호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계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대상 간호학생들의 죽음에 대한 성향의 평균점수가 전공학습 전과 후 모두 중간수준의 성향을 나타내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오히려 전공학습을 마친 후에 전보다 죽음에 대해 부정적인 성향을 보였던 결과는 Rosalee 등(1974)의 연구에서 4학년 간호학생이 1학년생보다 임종환자 간호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이었다는 결과, 2학년생이 1학년생보다 죽음의식이 더 긍정적인 성향으로 나타난 결과(Cho, 1997), 그리고 4학년생이 1학년생보다 죽음에 대한 태도점수가 더 긍정적이었던 결과(Kim 등, 1992)들과는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본 대상학생들이 임종환자 간호에 대한 사전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임상실습을 했기 때문에 이론과 실습의 전공학습이 끝난 후에도 죽음에 대해 더 부정적인 성향을 나타낸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본 결과는 임종환자 간호경험이 있는 간호학생 중 62.7%가 환자를 도와주

고 싶었으나 30%정도에서 간호를 할 줄 몰라서 피하고 쉽고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는 결과(Yang, 1992), 간호학생들이 환자간호의 책임을 맡게 되었을 때 그들의 부족한 능력에 의해 쉽게 상처받게 된다고 간호학생의 스트레스를 지적하였던 Anderson (1983)의 견해 그리고 간호학생들이 임종환자의 간호가 다른 환자를 간호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응답하였던 결과(Lee, 1993)들을 잘 반영해준 일맥상통한 것으로 보인다. 즉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학생이 임종환자 간호에 직면하게 될 때 이들은 불편감과 무력감을 느끼고 그 상황을 회피할 수 밖에 없으므로 죽음에 대해 더욱 부정적인 성향을 갖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전공학습 후에 대상자의 죽음성향점수가 중간성향과 부정적인 성향의 비율이 전공학습전보다 각각 증가하였고, 긍정적인 성향을 지닌 간호학생들의 비율도 전공학습 후에 22.8%에 불과해 전공학습 전의 21.5%와 거의 유사하였기에 본 대상자의 약 2/3정도가 영적 간호를 수강한 경험이 있었지만 그들의 죽음에 대한 의식은 여전히 부정적인 성향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간호학생들의 98.6%가 임종간호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지적하였으며(Kim 등, 1992), 간호인들이 대상자에게 필요한 영적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간호인 자신의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되어졌을 때 가능하고, 영적 간호를 수행하지 못하는 원인이 간호인 스스로가 영적 영역에 대한 확신이 없고 영적 간호에 대한 몰이해 등 간호인의 태도 때문인 것(김옥란, 1981)으로 볼 때 본 결과는 무엇보다도 임종환자를 간호하는 실제 상황에서 올바른 대처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간호학생들 자신의 긍정적인 죽음관 정립과 임종환자 간호능력습득을 위한 교육이 시급한 실정임을 시사해주고 있다.

본 간호학생의 죽음에 대한 성향의 문항별 평균(전:2.3점, 후:2.4)을 선행 연구결과들과 비교해 보면 Cho(1997)의 간호학생(2.52점)과 비간호학생(2.50점)의 죽음에 대한 성향이나 Park 등(1996)이 조사한 간호사의 죽음에 대한 성향(2.5점)에 비해 약간 낮게 나타난 경향이었으나, Park(1992)의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의 죽음에 대한 성향(2.06점)

보다는 높게 나타나 더 부정적인 성향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런 결과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이 일반적으로 간호학생에 비해 고연령층으로 죽음을 수용하고 대상자의 평안한 죽음을 돕는 위치에 있으며, 또한 높은 종교성을 지니고 호스피스 교육을 받는다는 점 등의 차이에 의한 것이므로 간호학생들에게도 이런 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죽음에 대한 성향비교에서 전공학습 전과 후에 모두 간호학생 자신의 신체적 기능이 언제나 좋다고 느끼는 군이 좋지 않다고 느끼는 군보다 죽음에 대한 성향점수가 유의한 차이로 더 낮게 나타나 신체적 기능이 좋다고 인식할수록 죽음에 대해 더 긍정적인 성향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전공학습 전의 죽음에 대한 성향점수는 영적 간호 수강경험이 있는 군(47.8점)이 없는 군(58.5점)보다 유의한 차이로 낮게 나타나 죽음에 대해 더 긍정적인 성향을 보였으나 전공학습 후에는 영적 간호에 대한 수강경험유무에 따라 죽음에 대한 성향점수가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영적 간호의 수강경험이 있었던 군이 없었던 군보다 약간 더 부정적인 성향을 나타낸 결과는 주목해야 할 사항으로 이는 수강시간이나 내용에 대한 조건없이 단순히 영적 간호와 관련된 강의를 들은 경험유무만 질문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겠으나 교육의 비효과성을 암시해 주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본 조사대상인 C대학에는 임종 간호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으므로 영적 간호에 대한 수강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경우에도 구체적이거나 체계적인 교육을 받았을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죽음에 대한 올바른 사고와 태도확립이 어렵기 때문에 임종환자 간호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많은 불편감과 무력감을 느끼게 되어 전공학습 후에는 더욱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성향을 나타낸 것으로 사료된다.

종교가 있는 군(54.4점)이 없는 군(59.4점)보다 유의한 차이($t=1.82, p=.07$)는 아니었지만 죽음에 대해 긍정적인 성향을 나타낸 결과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Park 등(1996)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전공학습 전과 후에 모두 죽음에 대한 성향점수가 대상자 가족의 질병유무나 5년 이내 가족의 사망경험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Cho (1997)의 연구에서 간호학생중 질병을 지닌 가족이 있는 군이 없는 군보다 그리고 최근 5년 이내 직계 가족의 사망을 경험한 군이 경험하지 않은 군보다 유의한 차이로 죽음에 대한 성향점수가 높게 나타난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전공학습 전과 후에 대상자의 종교성과 죽음에 대한 성향간의 관계를 보면 전공학습 전에는 종교성이 죽음에 대한 성향점수와 역상관($r = -.239, p = .006$)을 나타내 종교성점수가 높을수록 죽음에 대한 성향점수가 낮으므로 죽음에 대해 더 긍정적인 성향을 보였던 결과는 간호학생의 97.4%에서 종교가 죽음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준다고 응답했던 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또한 이는 종교적인 사람일수록 침착하게 죽음을 맞이할 있고 믿음이 확고한 사람들은 빠르고 쉽게 임종단계들을 거친다(Rosalee 등, 1974)는 주장들과 일맥상통하므로 종교성이 죽음의 성향에 매우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바람직한 전인 간호를 수행할 수 있는 간호인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간호교육과정내 죽음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정립과 임종간호에 대한 교육계획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일 간호교육과정 내에서 임종간호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의 간호학생들이 갖는 죽음에 대한 성향도와 기존 교육과정의 전공학습을 전부 마친 후에 그 간호학생들이 갖는 죽음에 대한 성향정도를 비교하고 그에 관련되는 요인들을 파악함으로써 간호학생들에게 전인적 임종간호를 수행하는데 중요한 죽음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형성과 올바른 죽음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기존 교육과정의 개편의 필요성을 파악하고 이를 계획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은 K시에 위치한 C대학 간호학과에 재학중인 간호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1998년과 1999년에 각각 전공학습에 들어가기 전인 2학년 학생들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한 후 자료수집을 하였으며, 그 학생들이 4학년이 되어 전공학습

을 전부 마친 2000년과 2001년에 각각 다시 한번 동일한 내용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전공학습 전에 대상자의 죽음에 대한 성향점수는 최소 25점, 최대 86점으로 평균 57.8점이었고, 전공학습 후의 죽음에 대한 성향점수는 최소 29점, 최대 93점으로 평균 60.2점이었으나 전공학습 전과 후의 죽음에 대한 성향점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죽음에 대한 성향점수를 보면 전공학습 전에는 대상자 자신이 인식하는 '평상시 신체기능($F = 3.83, p = .023$)'과 '영적 간호수강($F = 2.58, p = .010$)'유무에 따라 죽음에 대한 성향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전공학습 후에는 대상자 '자신의 건강에 대한 느낌($F = 4.76, p = .001$)'의 좋고 나쁨에 따라 죽음에 대한 성향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어 건강느낌이 좋다는 군의 죽음에 대한 성향이 더 긍정적이었다
3. 대상자의 종교성과 죽음에 대한 성향점수간의 관계를 보면 전공학습 전에는 대상자의 종교성과 죽음에 대한 성향점수간에 유의한 역상관($r = -.239, p = .006$)으로 나타나 종교성이 높을수록 죽음에 대한 긍정적인 성향을 나타냈다. 전공학습 후에는 이 두변인간에 상관관계가 없었다

본 대상자의 죽음에 대한 성향점수는 부정적인 성향과 긍정적인 성향의 중간수준으로 전공학습전과 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오히려 전공학습 후에 죽음에 대한 성향이 더 부정적인 경향을 보였던 결과로 보아 이들의 죽음에 대한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다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간호학생들이 죽음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로 임종환자를 간호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교육과정내 임종간호관련 내용의 분석 검토가 필요하고, 효과적인 교육을 위한 임종간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단일 교과목으로 교육과정 내에 포함시킬 것을 제언한다.

References

- Bell, B. D., & Batterson, C. T. (1979). The Death attitudes of older adults. A Path analytical exploration. *Omega*, 59-76.
- Cho, I. S. (1997). Comparative study on the death orientation of nursing students and non-nursing students. *Theses Collection of Kwang Ju Womens Junior College*, 5, 391-406.
- Choi, K. O. (1991). *A study on the dying experience in terminal cancer pati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Yonsei University of Korea, Seoul.
- Frommelt, K. H. M. (1991). The effects of death education on nurses' attitudes toward caring for terminally ill persons and their *The American Journal of Hospice & Palliative Care*, 8(5), 37-43.
- Gow, C. M., & William, J. I. (1977). Nurses attitudes toward death and dying : Acausal interpretation. *Soc. Sci. Med*, 11, 191-198.
- Kastenbaum, R. J. (1986). *Death, society and human experience*. 3rd ed., Columbus: Bell & Howell Co., 117-133.
- Kim, B. H., Chon, M. Y., & Kang, H. J. (1997). A Study on the death orientation of hospice care member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9(3), 453-461.
- Kim, J. H., Chun, C. J. & Kim, B. H. (1992). A study on undersanding and attitude to the dying patients of nursing students and nurses. *Korean Journal of Academy of Adult Nursing*, 4(1), 5-16.
- Kim, M. S. (1991). *Spiritual nursing of dying patients*. Seoul: Sumunsa.
- Kim, O. R. (1981). The Emotional Problems of Dying Patient and its Spiritual Care. *The Korean Central Journal of Medicine*, 40(5), 379-383.
- Kim, S. Y. (1980). A literary review of obstacles to providing psychological care for dying patients and his family -according to American Journal of Nursing-. *The Korean Nurse*, 19(5), 55-68.
- Kozier, B., Erb, G., Berman AJ., Burke, K. (2000). *Fundamentals of Nursing*, 6th ed., Addison-wesley.
- Kwon, H. J. (1980). A Study on the death consciousness among health care personnels. *The Journal of Nurses Academic Society*, 10(2), 21-40.
- Kwon, H. J. (1989). Perceptions of spiritual nursing care nurses and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Nurses Academic Society*, 19(3), 233-239.
- Lee, E. J. (1993). Nurses' and nursing students' responses to dying and death in the hospital setting. *The Journal of Kwong Ju Junior College*, 7, 451-466.
- Narayanasamy, A. (1993). Nurses' awareness and educational preparation in meeting their patients' spiritual needs. *Nurse Education Today*, 13(3), 196-201.
- Rosalee, C., Yeaworth, Frederic, T. K., & Carolyn, W. (1974). Attitude of nursing students toward the dying patients. *Nursing Research*, 23(1), 20-24.
- Park, S. C. (1992). A study on the death orientation of hospice volunteers. *The Journal of Nurses Academic Society*, 22(1), 68-80.
- Park, S. J., & Choi, S. H. (1996). A study on the degrees of death orientation and terminal care performance of nurses. *The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3(2), 285-297.
- Thorson, J. A., & Powell, F. C. (1988). Elements of death anxiety and meaning

of deat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4(5), 691-701.

Yang, S. H. (1992). A study on attitudes of nursing students towards hospice care. *The Journal of Red Cross Nursing*, 14, 103-126.

Abstract

A Comparison of Death Orientation in Student Nurses before and after Studying a Major

Choi, Soon-Hee* · Lee, Eun-Ju**
Park, Min-Jung***

This study was done to compare death orientation scores for student nurses before and after studying a major.

The participants were 130 student nurses before the major and 123 student nurses after the major at C university in Kwang Ju city.

The data were gathered from March, 1998 to September, 2001 using a questionnaire.

The data were analysed by Chi square

test, t-test, ANOVA an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mean scores for death orientation before and after the major were 57.8 and 60.2 respectively. The mean score of death orientation after the major tended to be higher than before but they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2.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death orientation scores between the two groups before the major for 'physical function ($F=3.83$, $p=.023$)' and 'attending a lecture on spiritual nursing ($F=2.58$, $p=.010$)'. After the major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 for 'feeling of health ($F=4.76$, $p=.001$)'.
3. The death orientation scores before the major showed an inverse correlation with religiosity score ($r=-.239$, $p=.006$). After the major there was no correlation with religion.

Key words : Nursing Student,
Death Orientation

* Department of Nursing, Medical School,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Department of Medical Technology, Seokang College.

*** The Research information Center for Health, Chonnam National University